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드사이드 (Woodside)”, “서니사이드 (Sunnyside)”,

“롱 아일랜드 시(Long Island City)” 및

“아스토리아 (Astoria)”와 “매스페스 (Maspeth)”

지역인 뉴욕 시 제 26 지구 시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브렌트 오리어리 (Brent O'Leary)”입니다.

저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로 저의 임무는 투명하고, 책임 있고 항상

가까이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매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출된 공무원과 로비스트

사이의 모든 대화를 기록 및 공개함으로써 소수 이익

단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부 장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육, 보건과 노년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부 내 낭비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조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웃에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이뤄나가겠습니다.

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여러분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공요금, 교통 요금 및

기타 생활비용을 낮추도록 성과보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성과보수를 함께 하는 사람이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였습니다. 그리고 법, 경영 및 금융 분야에서 저 자신을 증명해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모든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루스벨트 대로 (Roosevelt Avenue)" 64 번가에 있는 저의 사무실로 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가 할 일이 대로 봉사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브렌트 오리어리(Brent O'Leary)"입니다.

정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